"구입해서 한 번도 못 입은 수영복입니다. 제 예쁜 수영복이 옷장 속에서 나와 새 주인도 찾고 그 수익은 좋은 일에 쓰이라고 '아름다운 가게'에 내놓습니다"

자신에게는 필요 없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소중하게 쓰일 수 있는 물건들을 기증받고, 그 판매 이익금을 그늘진 곳의 사람들을 위해 쓰는 비영리단체 '아름다운 가게'가 문을 열었다.

◇아름다운 가게를 알리기 위한 숲속 콘서트와 알뜰시장이 지난 7월 27일 남이섬에서 열렸다.

사랑 나눔 … '아름다운 가게' 안국동에 1호점 열어

불필요 물품 기증받아 수익금 '그늘진 곳에'

연내 서울역 등 10여곳 '매장' 개관 예정

'물건을 통해 사랑을 나누는 것을 시작으로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추구하는 순환형 사회를 만들어 보자'는 취지로 설립된 아름다운 가게는 박원순 변호사아름다운 가게 상임이사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장애인 고용과 약물중독자 치료기금 마련을 위해 재사용 물품 대장을 운영하고 있는 미국의 굿윌과 구세군 재활센터처럼 우리나라에도 알뜰가게를 마련해보자는 것이었다. 이후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에 서울 안국동 참여연대 사무실 앞에서 알뜰시장을 열었다. 지난 7월 25일에는 기업 1% 나눔의 일환으로 '아름다운 사람들 사진전'을 개최하는 아그파코리아대표 마티아스 아이히혼)와 함께 알뜰시장을 열었고, 27일에는 남이섬에서 아름다운가게를 알리기 위한 숲속 콘서트를 열기도 했다. 공연 전 약 2시간동안 여름철 의류와 책, 여름용품 등을 판매한 수익금은 21만 8천원. 수익은 많지 않았지만 관광객들은 물론 집에서 잠자고 있는 물건을 가지고 찾아온 가족들과 함께 한 소중한 시간이었다.

9월 말에는 서울 안국동에 아름다운가게 1호 점이 문을 연다. 이후 올해 안으로 서울역을 비롯 전국 10여곳에 재사용 물품매장을 개장할 예정이다. 아름다운 가게를 통해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생태운동과 나눔 운동을 생활화 하자는 것이다.

아직 상설매장은 문을 열지 않았지만 물품 기부나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아름다운가게에 참여할 수 있다. 물품은 택배로 보내거나 알뜰시장이나 아름다운 가게로 직접 가지고 가면 되고 기부 물품들을 분류, 손질하고 판매할 자원봉사 신청도 받고 있다. 02)3676-1004

여성 담당=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눈부처

정찬주 지음

"스님 눈에 비친 부처님을 보고싶어요"

"어디에 부처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세상을 꽃으로 보는 사람 눈에는 비치는 것마다 다 부처다" (눈부처 중에서)

성철스님 일대기를 소설화한 '산은 산 물은 물' 등을 쓴 불교작가 정찬주 씨가 어른들을 위한 선

어른들을 위한 禪동화집

(禪)동화집 〈눈부처〉(김영사)를 펴냈다. 산골의 암자와 조용한 선방을 찾아다니며 보고 들은 이야기를 동화로 엮은 책으로 자연과 사람이 하나 되어 사는 '봉정암 산새', 부처는 법당에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가르침을 담은 '십우도' 등 스무 편의 짧은 동화가 실려 있다. 값 8천9백원.

함께 읽는 책

행복한 …

유철상 지음

〈행복한 가족여행 만들기〉(성하출판)는 여행칼럼리스트 유철상 씨가 가족여행객을 위해 펴낸 맞춤정보지다.

가족과 함께 조용히 다녀올 수 있는 유명 여행지는 물론 잘 알려지지 않은 우리나라의 구석구

가족여행지 계절별 안내

석을 계절별로 나누어 안내하고 있다. 실제 여행에 나섰을 때 편안함과 안정감을 줄 수 있도록 여행코스와 코스간의 이동, 맛있는 음식점, 숙박 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 또한 부모님과 함께 하는 건강여행, 자녀와 함께 하는 체험여행 등 테마별 여행정보도 담았다. 값 1만원.

캐릭터 형식 순금아기부처 카드

불자순금카드는 불교를 상징하는 부처님, 연꽃, 동자 스님 등을 친근한 캐릭터형식으로 제작한 제품으로 '달마', '연꽃', '일주문동자' 등을 비롯

클릭 ! 불교문화상품

www.mahamall.co.kr

해 10여 종류가 있다. 카드는 1만 5천원, 목재 케이스에 포장된 것은 2만5천원이다. (주)쌍용 발행 귀금속 품질보증서도 제공한다. 8Cm×5.5Cm

여성단신

'사찰음식 한마당' 행사 참가 희망자 모집

한국전통사찰음식문화연구소(소장 적문)는 30일 서울시립노인요양원에서 열릴 '무의탁 노인들을 위한 사찰음식 한마당'에 함께 할 참가자를 모집한다. 자신의 손으로 만든 연자죽, 버섯덮밥 등을 무의탁 노인들에게 봉양하는 이번 행사에는 '사찰음식과 노인건강 섭생법'이란 주제 강의와 레크레이션 시간도 마련되어 있다. (02)355-5961

박물관 문화강좌 개최 전남대, 14주 과정

전남대박물관(관장 나경수)은 9월 4일부터 12월 4일까지 14주 과정으로 제13기 박물관 문화강좌를 연다.

'한국의 자연과 문화-그 원형을 찾아서'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강좌는 수강생들에게 보다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과정과 심화과정으로 나누어 진행한다. 전문과정은 매주 수요일 오후 3시, 심화과정은 같은 날 오후 7시 전남대 박물관 4층 시청각실에서 진행된다. 수강료는 학생 및 경로자는 4만원, 일반은 5만원이다. (062) 530-3582

주부 신행담

열반의 화음 온누리에 上 강형진 (나르바나 실내악단장)

8월 17일 본각 스님이 이끄는 화엄장학회 하기수련대회가 경기도 이포의 청련암에서 열렸다. 별장 같은 암자 옆엔 냇물이 흐르고, 달밤에 마당에서 돗자리 깔고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풀벌레 소리의 반주에 맞춰 바이올린 독주를 했다. 연주 후 젊은 불자는 물론 노보살님까지 얼마나 좋아하시던지. 공양시간에는 공연소감으로 이야기꽃을 피웠다. 연주 중 저 세상에 간 친한 도반을 축원했다는 분, 너무 감동받아 절에서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분, 자주 보자고 몇 번이나 당부하시는 분... 아름다운 자연과 포근한 산사를 배경으로 음악을 들은 이의 감동은 아마 평생 기억되지 않을까 싶다. 이것이 니르바나 실내악단이 추구하는 음악포교다.

99년 현악 전공 17명이 '악단' 창단 연주기회 부족 · 재정난 겹쳐 어려움

내가 불교와 처음 인연을 맺게 된 것은 89년 무렵, 시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정성으로 도와주던 황득효 보살님을 만나게 되면서부터다. 황 보살님 덕에 여러 스님을 뵙게 되었고 그 중 한 분이 지금의 나의 원찰인 금장사의 주지 스님인 본각 스님이다. 그렇게 스님과 초발심부터 인연이 되어 지금까지 꾸준히 나의 스님으로 모시고 오게 되었다. 돌이켜보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정법 만나는 인연이 목숨보다 소중하다는 것을 신행생활이 깊어지면서 더욱 절실해진다.

그렇게 10년을 보내다가 불교음악에 관심을 두게 되었다. 현악기를 전공한 음악지도자라는 사실이 주변 스님들에게 알려지면서부터 불교계의 각종 행사에 초대돼 연주하는 일도 잦아졌다. 그때 당시엔 절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한다는 것이 너무 어색하고 생소하고 뭔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신행생활과 일을 구분하고 싶기도 했다. 그러나 한편 15년 동안 바이올리니스트로 활동했던 KBS 교향악단에서의 연주생활이 조금씩 그리워지기 시작했다.

내가 평생 배운 것이 음악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음성공양을 통해 불자들이 신심을 길러 정법을 펼칠 수 있도록 포교하는 일을 하고 싶었다. 주위에선 다들 열악한 환경의 불교음악계에서 실내악단을 운영하는 것은 모험이라고 한사코 만류했지만, 오히려 국민들 대부분이 초등학교때부터 서양 음악을 배워 왔다는 점에서 서양음악이 더욱 친숙하리라는 생각도 들었다. 그 마음이 동기가 되어 1999년 2월, 바이올린 첼로 비올라 등 현악기를 전공한 불자 예술가 17명으로 이루어진 니르바나 실내악단을 창단했다.

그러나 막상 창단하고 보니 여러 가지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었다. 클래식에 대한 이해가 깊지 않은 교계에서 정통 실내악단을 꾸려 나가는 것이 쉽지는 않았다. 무엇보다도 불교음악계는 국악이 주류를 이뤄 서양음악의 활동폭이 상대적으로 좁은데다가 불자들의 호응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행사를 주관하는 스님들이 쉽게 기회를 마련해 주지 않았다. 또한 서양음악을 하는 전문음악인과 그것을 펼쳐 보일 무대, 연주기회의 부족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까지 뒤따랐다. (계속)

전국 비구니회

전국 비구니스님들의 30년 숙원으로 완공된 전국비구니회관에서 비구니 스님을 모십니다.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각 분야에서 대승보살 정신을 발휘하실 서원을 가진 비구니스님을 찾습니다.

이 시대에 도심의 한가운데서 결사의 정신으로 모여서 자기의 수행을 연마하는 한편 사회의 요청에 대응하는 상구보리 하화정신을 실천하실 능력있는 비구니스님을 모집합니다.

1. 제출서류 : 수행이력서 1부(이력, 경력, 수행이력 기재)
2. 제출기간 : 모 집 - 2002년 9월 9일(음 8월 3일)
   - 9월 14일(음 8월 8일)
   면 접 - 2002년 9월 16일(음 8월 10일) 오후 2시
3.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4. 제 출 처 : 조계사 비구니회 사무실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45번지)
5. 면접장소 : 전국비구니회관 (서울 강남구 수서동 744번지)
6. 기타문의 : 02-733-5467

전국비니회관 사찰음식 / 금강선무도 무료공개강좌 안내

강좌	강연	요일	시간
금강선무도	광원 스님	9월 10일 (화)	오전 10:00
사찰음식	선재 스님		오전 11:00

실버타운 입주안내

1. 입주자격 및 절차
- 만 60세 이상 신체 건강한 분 및 60세 미만 부부
- 소정의 생활비를 부담할 수 있는 분
- 보증인(자녀)과 노인동행으로 직접 내원 상담 후 결정

2. 구 비 서 류
- 건강진단서, 호적등본 1부, 주민등록 1부, 증명사진 3장

3. 시 설 안 내
- 3동(96실) ◆ 숙실평형 : 9.5평

4. 부 대 시 설
회의실, 강의실, 진료실, 간호실, 재활치료실, 약국, 사우나, 식당, 세탁실, 강당, 상담실, 휴게실, 수영장, 체련실, 바둑 게이트볼, 삼림욕장, 탁구장, 독서실, 공작실, 서예실, 노래방, 채소재배단지, 온천탕(시공중),산책로

5. 입 주 비 용

평생입주 및 휴양입주	구 분	입주보증금	월생활유지비
	1실 1인	50,000,000	500,000
	1실 2인	50,000,000	900,000

※입주금 중 보증금은 퇴실시나 사후 돌려드립니다.

6. 연 락 처
02)743-0294,011)9781-7301 Fax 02)747-4866

※ 공양주, 행자스님 모십니다.

사회복지법인 성라실버타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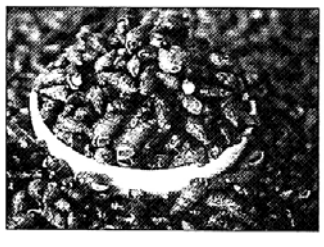
간(肝)이

간 염
지방간
간경화
…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 재래식(가마솥)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 줍니다.

◎ 다슬기 농축액 :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 다슬기 기름 : 다슬기 15Kg을 항아리에 넣고 왕겨 97가마니를 덮은 뒤 왕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슬기가 땅속에 묻어둔 빈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왕겨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꼬박 8~9이 걸립니다. 한달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 : 055) 963-9583 · 상담문의 : 055) 355-5626

산마을 토종 (민속농원)